



# 일본 근대화 과정 분석

## 「서양지성사와 철학」과 「일본입문」강의페어링

기계공학과, 차영수, 200921707, 송하석 교수님 지도

### 목적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0년 담화에서, "(전략) 일본의 고립감이 심화되어 외교적, 경제적인 경색을 힘의 행사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국내 정치 시스템은 이를 제어하지 못했고, 이렇게 해서 일본은 세계의 대세를 보지 못해 만주사변, 그리고 국제연맹 탈퇴 등 점차 국제사회가 엄청난 희생 위에 구축하려 했던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자"가 되었다." 고 말했다.

아베는 담화에서 "국내 정치 시스템이 이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일본은 입헌군주를 택했지만 왕권에 대한 제한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의회는 왕권을 제대로 제지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국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Kings reign but do not govern)"는 영국의 입헌군주제와 달리 일본의 입헌군주제는 왕권에 대한 적절한 제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영국의 명예혁명의 정당성과 근대 일본의 국가사상을 분석하여 일본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서양지성사와 철학’에서의 명예혁명

명예혁명 당시 정당성을 주장할 때, 존 로크의 『첫 번째 논고』, 『두 번째 논고』를 근거로 삼는다. 존 로크는 두 번째 논고를 통해 재산, 통치, 혁명의 상호관계에 대해 말한다. 그는 통치는 바로 재산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한다. 재산이 없다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통치도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는 합당한 범위 내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합법적이라 말한다. 재산이 합법적으로 되면, 통치 역시 합법적이 된다는 것이다. 정당하게 재산을 소유한 사람은 또한 재산을 보호할 권리도 지니고 있으며, 통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통치는 통치자와 피치자가 모두 동의하는 통치라고 말한다. 합법적인 통치자는 자신의 선을 위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치자의 선을 위해서 통치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만약 통치자가 합법적이지 않은 통치를 행하는 경우, 혁명은 합법적인 것이 된다고 말한다.

영국 시민들은 이런 존 로크의 논고를 근거로 하여 자신들의 혁명이 정당하다는 근거를 얻었고, 의회에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며 권리장전이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 결론

일본이 메이지유신을 통해 근대화를 하게 된 이유는 서구 열강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함이며, 막부정권의 외교, 국방, 내정에서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함에 따른 천황에게 권력을 다시 반환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성공적으로 막부를 타도하고 천황에게 권력을 양도하며 서구의 침략에 대항하며 근대국가를 형성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근대국가에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들의 국가사상은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포함하고, 국민에 대한 지배하고자 했다. 통치자들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던 체제를 원했던 것이다. 결국 일본은 근대국가의 형성부터 전체주의적인 체제였으며, 그에 맞는 길을 만들어간 것이다. 결코 잘못된 선택을 통한 실수가 아닌, 자발적인 행동의 결과인 것이다.

### 참고자료

박삼헌(2012), 「근대 일본 형성기의 국가체제 : 지방관회의 · 태정관 · 천황」, 소명출판  
 찰스 밴 도렌(2010), 「지식의 역사」, 박종서 역, 갈라파고스  
 김민제(1998), 「영국 혁명의 꿈과 현실」, 역민사  
 페터 벤데(2004), 「혁명의 역사」, 권세훈 역, 시아출판사  
 이노우에 가쓰오(2013), 「막말 유신」, 이원우 역, 어문학사  
 安達吟光(1889), 「新皇居於正殿憲法發布式之図」  
 작자미상(1689), coronation of king william iii and queen mary of great britain

### 일본입문’에서의 메이지유신

일본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사상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인물이 카토 히로유키이다. 그는 '우매한 민이 많은 국가에서는 입헌정체를 세워 널리 공의여론을 취하려던 것이, 오히려 완우(頑愚)한 논의만 있어서 치안에 해가 된다.'며 국가에서 천부인권을 제한하고 군주정체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그의 사상을 바탕으로 대일본제국헌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대일본제국헌법을 통해 일본이 시작된 지 2천 5백여 년 동안 군주정체가 다른 정체로 바뀌지 않았으며, 이것은 '국체(國體)' 및 '민정'에 적합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대일본제국은 천황이 통치한다고 정의한다. 이러한 '국체'개념은 <교육칙어>를 통해 다시 정당화 된다. 교육칙어에서 일본 신민들에게 국헌 존중, 국법 준수와 함께 '(국가가) 위급할 때 스스로 몸'을 바치는 근대적 애국주의를 동일하게 요구하였다. 결국 근대 일본은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의 자원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며 국가에 충성하고 몸 바치기를 원했던 것이다.

근대 일본의 정치체제는 입헌군주제보다 전제군주제에 가까운 정치체제를 형성한 것이다.

